

가정 예배 모범

- 2020_10_1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 자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오직 예수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고린도후서 12:1-13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5절)?

바울의 적대자들은 사도직의 증거로서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깊은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오직 자신의 약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9).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강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9-10절)?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8).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당면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난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게 되기를, 시련 속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구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